

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로봇수술을 꿈꾸다



강릉아산병원 객재영 로봇수술센터장(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의료진들.

강릉아산병원은 2021년 7월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했다. 강원 영동지역 최초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에 발맞춰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2025년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하며 강원 영동지역 로봇수술 거점 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강원 영동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었고, 로봇수술도 도입되지 않았어요. 강릉아산병원의 로봇수술 도입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크고, 강원 영동지역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로봇수술 도입도 늦은 편이고 1,000례 달성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동안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1,000례 달성은 숫자적인 의미보다 로봇수술이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가 더 커요.” 객재영 로봇수술센터장은 “이제 로봇수술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의 선택지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한다.

로봇수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고민하다

로봇수술은 집도의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로봇팔을 활용해 수술하는 최소 침습 수술방법이다. 로봇팔이 들어갈 작은 구멍 몇 개만 절개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고 환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의사 역시 10~15배 확대된 3차원 입체 영상으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면서 한층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다.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이러한 로봇수술의 장점을 알리고 강릉지역에서도 로봇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세미나와 체험행사 등을 통해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

다. 기존에 로봇수술을 경험한 의료진은 물론이고 로봇수술의 장점을 눈으로 확인한 의료진들도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 시작했다. 전립선암 환자 수술로 시작된 로봇수술은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 3개 과에서 활발히 실시됐고, 로봇수술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광재영 로봇수술센터장은 “여러 과에서 로봇수술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각 과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로봇수술 장비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각 과의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조율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고난도 수술 등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할 때에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데 힘썼고요.”

지역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로봇수술센터의 노력으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하고 더 많은 의료진의 참여까지 이끌어냈다. 현재 로봇수술 비중은 외과가 가장 높은 40.6%를 차지하고, 비뇨의학과가 35.6%, 산부인과가 23.8%를 차지하고 있다. 고난도로 알려진 전립선 절제술이 가장 많이 시행됐고 담낭 절제술과 자궁 절제술이 뒤를 따랐다. 또 자궁경부암 환자 자궁 절제술, 유문-보존 채두부십이지장 절제술, 췌장중양절제술 등 여러 고난도 수술에도 성공했다.



로봇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현장.



강릉아산병원 로봇수술센터 입구에 선 광재영 센터장.

로봇수술센터는 앞으로 로봇수술 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난도 수술 등 실적 향상, 논문 발표 등을 비롯해 수술관리 데이터를 축적해서 수술의 질을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등 양적·질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술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수술 장비가 뛰어나도 이를 활용하는 의료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고난도의 수술에 성공했다는 것보다 환자에게 최선이 되는 수술을 했다는 것, 그리고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퇴원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는 의료진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재영 로봇수술센터장은 마지막으로 “강릉지역 주민들이 꼭 서울로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글 편집부